

한국어 부사 연구에 있어서의 쟁점과 과제*

- 담화·화용적 관점에서 -

한송화

(연세대학교)

<Abstract>

Han, Song Hwa. 2016. **The Issues on Studies of Korean Adverbs—Perspective on Discourse and pragmatics.** *Korean Semantics*, 52. Korean adverb is one of part of speech that is categorized by meaning, form and function in sentences. The function of adverbs is said that they modify verbs in sentences or they modify sentences at beginning sentences. But Korean adverbs have various functions in discourse. The first,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 among the adverbs are used for intensifying cohesion in discourse. And ‘근데, 그니까, 그래서, 그럼, 하여튼, ...’ among the adverbs are used as discourse markers that display discourse border such as introduction, change and finishing of topic. ‘그니까, 하긴, 설마, ...’ are used as semi-yes/no responses and ‘정말, 진짜, 그냥, ...’ are used as speech act sentences for demanding or threatening in conversations. And ‘혹시, 아마, 그냥, 막, ...’ are used as discourse markers that strengthen or weaken speaker’s speech representing for speaker’s mental attitudes. Lastly the functions of ‘차라리, 오히려, 물론, ...’ can be known through discourse premise.

핵심어: 부사(adverb), 접속부사(conjunctive adverb), 문장부사(sentence adverb), 담화 기능(discourse function),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

* 이 논문은 제38차 한국어의미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임.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27).

1. 서론

한국어 품사 중 부사를 논의할 때면, 이의 기능으로 항상 언급되는 것이 ‘수식(꾸밈)’이다. 즉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비활용 어휘를 부사로 범주화한다. 최현배(1937/1983:590-604)에서는 부사(어찌씨)를 용언(풀이씨)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로서, 의미에 따라 시간부사(때어찌씨), 장소부사(곳어찌씨), 상태부사(모양어찌씨), 정도부사(정도어찌씨), 화식부사(말재어찌씨), 접속부사(이음어찌씨)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간부사나 장소 부사, 상태 부사, 정도 부사는 속성을 나타내는 반면, 접속부사와 화식부사는 문장을 이어주거나 문장의 방식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 남기심, 고영근(1985/2011:176-181)에서도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품사로 정의하고 이를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성분부사는 ‘활짝, 바로, 아주’와 같이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이며,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사는 문장 내적 성분이나 문장의 수식 기능과 관련하여 범주화되는 어휘 범주이다. 그런데 이들 부사를 보면, 다양한 다층적 성격을 가지는 어휘들이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하나가 접속부사이다. 최현배(1937/1983)에서는 접속부사를 부사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나, 주시경(1910), 김민수(1960)에서는 이를 접속사라는 다른 품사 범주로 독립시켰을 만큼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화식부사(말재어찌씨) 혹은 양태부사로 범주화되는 ‘무릇, 물론, 과연’ 등도 문장 전체의 의미 영역과 관련되며,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정 성분이나 용언을 수식하는 다른 부사와는 다소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사의 범주 구분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일례로 김문기(2012)에서는 감탄사 범주를 부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 감탄사와 상징 부사, 감탄사와 접속부사의 경계 문제를 통해 논의하였으며),

1) 김문기(2012)에서는 감탄사라는 품사 범주가 다른 품사 범주들에 비해 화용론적 특성이 상당히 많이 고려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태부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임유중(1996)에서는 문장부사를 모두 제외하고 용언을 수식하는 것만을 부사로 범주화하기도 하였다²⁾. 이와 같이 부사, 접속사, 감탄사 등의 품사 범주의 혼재와 혼란은 부사가 지니는 다양한 기능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사 중 접속부사는 문장 내 성분 수식의 성상부사나 정도부사 등과는 달리 문장과 문장을 일정한 의미 관계로 연결함으로써 담화를 구성하게 한다. 또 화식부사 혹은 양태부사로 불리는 ‘과연, 물론’ 등은 문두에 혹은 담화에서 홀로 사용됨으로써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³⁾. 이 외에도 일부 부사는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화제의 전환이나 화제의 유지 등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부사라는 품사 중 일부의 부사들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장 차원에서의 ‘수식’의 기능으로 그 기능을 일괄 설명할 수 없는, 즉 문장을 넘어선 담화 차원에서의 언어 외적 요소인 화자와 청자, 맥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능을 설명해야 하는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사는 특정한 문법적 특성이나 자질을 공유한 품사 범주로서 범주화되고는 있으나 이들 범주 내에는 다소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사라는 품사의 이질적 특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부사가 가지는 담화적 특성에 주목하여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 부사 연구에 있어서의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부사 연구에서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부사가 지닌 담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외 앞으로 부사의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담화적 기능에 대해 제안함으로써 담화적 시각에서 부사를 재조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부사 연구에서 쟁점화되었던 접속부사 논의와 이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부사가 지니는 화자의 태도 즉 부사의 양태성과 관련한 양태 부사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쟁

2) 임유중(1996)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만을 부사로 범주화하고 시간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정도부사, 부정부사로 하위 구분하였다. 단, 이에서의 양태부사는 모양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부사를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임유중(1998)에서는 이 중 ‘무릇, 물론’ 등의 문장부사를 다시 부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부사를 수식 기능과 호응 기능의 부사로 분류하였다.

3) 화식부사 혹은 양태부사는 구어에서 문두뿐만 아니라 문말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화식부사는 홀로 쓰여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접화되고 있는 부사의 담화표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의 접속부사

최현배(1937/1983:602-603), 남기심·고영근(1985/2011:181)에서는 부사의 하위 범주로 접속부사를 범주화하고, 접속부사는 단어나 혹은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접속부사를 단어를 연결하는 부사와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로 분류하였다⁴⁾.

- (1) 접속부사: 앞 말(대개는 월)을 이어서 뒤에 오는 말을 꾸밈. (최현배, 1937/1983:602-603)
 - ㄱ. 단어 연결: 및, 또는, 곧
 - ㄴ. 문장 연결: 또, 더구나, 하물며; 그러니, 그러한즉, 따라; 그러면, 그러하게; 그렇지마는, 하지마는, 그러나
- (2) 접속부사: 앞 문장의 의미를 뒷 문장에 이어주면서 그것을 꾸밈. (남기심·고영근, 1985/2011:181)
 - ㄱ.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뿐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지마는, ...
 - ㄴ. 곧, 즉, 또, 또한, 더구나, 도리어, 오히려, 하물며, 따라서, ...
 - ㄷ. 및, 또는, 혹은

또 접속부사에 대해서는 문장을 이어주며, 후행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논리적 관계에 따라 나열, 구속, 조건, 불구속(양보) 등의 의미를 지님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의 기능은 단순히 문장과 문장, 혹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맥락을 연결함으로써 담화의 긴밀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 (3) 80년대 액션영화에서 새롭게 등장한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전까지의 수동적인 여성 이미지에서 한결음 더 나아간 변화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

4) 남기심·고영근(1985/2011:181)에서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부사를 위의 (2)에서와 같이 ‘그 계열의 접속부사’와 ‘그 외의 접속부사’로 분류하였다.

다. ①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근육질로 단련된 여성 스타의 등장에 대해, 보디빌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사회의 유행을 따라간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디빌딩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여성을 겨냥한 패션잡지와 모델들과 미용의 유행이 근육질의 여성 신체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영화 역시 거기에 따라서 근육질 여성 스타의 몸매를 눈요깃거리로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물론 ‘여러분의 신체를 단련시키세요’라는 광고카피가 나온 배경에는 여성운동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지적하였다.

②그런데 ‘트루 라이즈’는 보디빌딩으로 단련된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운동의 결과로 비롯된 긍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유행에서 나온 일시적인 경향이라는 견해에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헬렌을 연기하는 제이미 리 커티스의 이미지는 리플리의 시고니 위버와 사라 코너의 린다 해밀턴의 이미지와 비슷하고 제임스 카메론의 액션영화의 여주인공이라는 사실도 일치한다. ③그러나 헬렌은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야한 옷차림으로 드러난 신체를 통해서 스키너와 함께 눈요깃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웃음거리를 만들어내는 푼수이다. <세종 문어>⁵⁾

위의 예에서 각 접속부사가 없다면 이들의 선행문장 혹은 담화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접속부사는 (3)①과 같이 선행문장 혹은 (3)②와 같이 선행담화와 후행담화, 혹은 (3)③과 같이 선행문장의 함의와 후행문장을 특정한 관계로 연결함으로써 담화의 내적 긴밀성과 결속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3)①에서는 ‘...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와 ‘...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의 두 문장을 ‘그러나’가 연결하고 있으며, (3)②에서는 ‘1980년대 여성 주인공의 액션 영화의 등장에 대해 이전 여성상을 극복했다는 견해와 여전히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제시했다는 논란이 있다’는 선행담화와 ‘최근의 트루라이즈를 보면 후자의 견해가 더 근거가 있는 것 같다’는 후행담화를 ‘그런데’로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3)③은 ‘트루라이즈

5) 본 연구에서 인용한 예문은 ‘21세기 세종계획’의 문어 및 구어 발음치와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21세기 세종 계획의 문어 발음치’에서 인용한 예문은 <세종 문어>, ‘21세기 세종 계획의 구어 발음치’에서 인용한 예문은 <세종 구어>, 드라마 대본 ‘옥탑방 고양이’에서 인용한 예문은 <드라마1>, 드라마 대본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인용한 예문은 <드라마2>로 출처를 밝힌다. 다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예문은 본 연구자가 만든 예문이다.

의 여주인공 헬렌은 시고비 위버와 같은 여주인공과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문장의 함의, 즉 ‘헬렌은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상이다’라는 함의와 후행 문장 ‘헬렌은 강인한 여성상이 아니라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제공한 것이 불과하다’는 문장을 ‘그러나’로 연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접속부사가 문장 차원에서 논의할 품사가 아닌 담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품사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에서의 쟁점은 접속의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공유하는 형태들의 범주화였다. 신현숙(1989)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의 의미를 논의하면서, 이들 접속부사를 선행 담화를 대용하는 표지 즉 ‘담화대용표지’로 명명하고 이는 낱말이나 문장 층위에서의 연구가 아니라 담화 층위에서 연구해야 함을 제안하면서 이들 부사가 ‘그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선행 담화를 대용하는 공통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⁶⁾. 그리고 이희자(1995)에서는 접속부사와 ‘먼저, 아무튼’ 등과 같이 문두에서 문장의 접속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의 문장에서의 기능적 공통성을 논의하며, 이들은 기존의 문장 성분인 부사어 혹은 독립어라는 범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사론 차원이 아닌 텍스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어휘군으로서 ‘접속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김미선(2001)에서는 ‘그러나, 그런데’ 등의 접속부사는 태생적으로 ‘그러하-’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지시와 대용, 연결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텍스트에서 문장이나 맥락의 연결 기능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뿐 아니라 맥락이나 함의까지도 이들의 연결에 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신지연(2005)에서는 접속부사뿐 아니라 연결어미도 접속어라는 범주로 설정하고 이들은 두 문장 사이의 긴밀성을 나타내면서 대조나 인과, 양보 등 명제 사이의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최근의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는 학교문법에서의 부사의 하위 범주로서 문장과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의 접속부사로서가 아니라 텍스트의 결속성과 관련하여, 텍스트

6) 그리고 신현숙(1989)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의 의미도 사건이나 사태, 심리적 연속성을 가지는지 혹은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의미가 구분된다고 하였다.

내용의 긴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텍스트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접속부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때 이희자(1995), 신지연(2005)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접속부사의 범위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다. 먼저 ‘그러하-’의 활용형 형태 중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그렇지만’은 접속부사의 범주로 다루고 있으나,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러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래야, 그렇더라도, 그렇기에’ 등은 연구자에 따라 접속부사 혹은 접속어의 범주에서 그 기능을 함께 논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또 ‘그리고 보면, 그리고 보니, 그래 가지고, 그건 그렇고’ 등 ‘그러하-’ 결합구의 담화에서의 기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4) ㄱ. 태양 아래 빛나지 않는 것이 없는 듯 먼지를 털어내자 검은 맑은 빛을 받아 금세 반짝반짝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어디선가 다희의 음성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세종 문어>
- ㄴ. ‘참으면서 살지 않는 것, 억지로 무얼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거만 하면서 살기’라는 말은 아버지를 일찍 잃은 뒤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카페에서 일하는 정다희(본명 김영자)의 말이다. **그렇다고** 가족주의까지를 해체시킬 단계는 아니어서 작가는 새 세대의 사랑관을 지지하면서도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진정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고향은 가족뿐일까,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어도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면 뿌리 뽑힌 인생이 되고 마는 걸까”라고 쓰면서 사랑의 궁극 목표를 가정 이루기에다 두는 데서는 이탈하지 않는다. <세종 문어>
- ㄷ. 작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던 선진국들은 큰 고민에 빠져 있다.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억제하면 자칫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는 없을까. 방출규제가 어렵다면 이산화탄소가 공기중에 남아 온실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하나 바닷속으로 치워버리자는 게 과학자들의 최근 생각이다. <세종 문어>
- ㄹ. 제가 교실에 막 도착하니 개랑 친구가 막 뒤엉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선 개들을 말려야겠다 생각해서 물이 가득 든 주전자를 집어들었죠,

7) ‘그래 가지고’에 대해서는 강소영(2005)에서 담화 기능을 분석한 바 있다.

- 口. 중장비를 사는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부담감이 느껴져요. 구매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런가 하면** 간혹 장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컨셉만 가지고 광고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세종 문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자, 그렇다고, 그렇다면,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가 하면’ 등은 접속부사와 유사하게 후행 담화의 앞에 사용되어 특정한 의미 관계로 선후행 담화를 연결시키고 있다⁸⁾. 이러한 ‘그러하-’ 활용형과 ‘그-’ 계열 접속사와의 경계적 혼란은 신현숙(1989), 김미선(200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하-’가 지닌 대응적 특성과 이들과 결합한 활용어미의 의미적 특성이 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속부사의 범주화와 관련하여, ‘우선, 먼저, 다만, 이어, 한편, 결국, 아무튼, 하여튼, 요컨대, 뿐만 아니라’ 등도 담화의 순서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등 후행 담화의 앞에서 선행 담화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접속부사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⁹⁾.

- (5) ㄱ. <녹색평론>은 지난 8월초 수도물불소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다섯편의 글을 묶어 특별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실은 여러해 전부터였다. ...<중략>...

그러나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확대일로에 있는 수도물불소화라는 보건정책이 얼마나 철저한 과학적 법적 사회윤리적 검토를 거치고 시행되느냐 하는 것이다...<중략>...

더욱이, 불소화의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일부 전문가집단의 주장을 아무런 비판적 검증없이 오랫동안 수용해온 대다수 언론의 근본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말미암아, 일반대중은 불소 및 불소화에 관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도 없이 무턱대고 이 시책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8) 연세대 한국어사전에서는 ‘그러자, 그렇다고’를 부사로, 고려대 한국어사전에서는 ‘그렇다면’을 부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러자, 그렇다고, 그렇다면, 그래 가지고’ 등은 사전에 따라 ‘그러하다, 그렇다’의 관용어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그러하-’ 결합형들을 접속부사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9) 이러한 담화 연결 기능을 이들 부사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연구자에 따라 이들 부사 중 일부를 접속부사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접속부사의 범주화에 다소 혼란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떠한 정보나 지식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남아있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중략>...

어떻든, <녹색평론>의 편집일을 통해서 우리는 특히 근년에 이르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등 현재 수돗물불소화가 시행중인 나라에서 불소화 반대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종 문어>

나. 우리가 특별자료집을 발간한 이후 이 자료집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수돗물에 첨가된 불소가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여서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었다.<중략> ...

한편, 우리가 펴낸 자료집은 — 일부 언론의 보도 덕분에 좀더 널리 알려지면서 — 불소화 추진론자들로부터의 격렬한 비난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인터넷 속에 굴러다니는 무가치한 자료들을 토대로 엮어낸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문건이라는 것이었다....<중략>...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열광적으로 불소화 시행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그룹은 미국치과의사협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협회는 최근 아이들의 불소섭취 적정기준을 새로이 수정하고 있다....<중략>...

요컨대, 이것은 다시 한번 불소의 끔찍한 독성을 증명하고 있는 재앙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재앙은 불소의 과량음용 탓이지만, <세종 문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이, 어떻든, 한편, 뿐만 아니라, 요컨대’ 등은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이 상세화를 위한 첨가, 요약이나 전환 등 선행 담화와 후행 담화의 논리적 관계를 명시화함으로써 담화의 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와 부사구에 대한 담화에서의 기능도 접속부사의 담화에서의 기능과 함께 비교 검토되어 담화 결속성과 관련된 전체 기능의 분류와 의미 기능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 접속부사 연구에서의 쟁점은, 최근 구어 담화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접속부사의 구어 담화에서의 기능, 즉 구어 담화를 조직하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¹⁰⁾. 즉 접속

10) M.Stubb(1983, 송영주 역1993 참조)에 따르면, 담화표지는 Labov and Fanshel(1977:156)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발화 서두에 사용되는 ‘well, now, right’와 같은 발화를 서로 결부시키고 담화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를 보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지 않고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으며, 통사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는 특징

부사가 화제의 도입이나 전환, 정리와 같은 담화를 조직하는 기능뿐 아니라 청자 발화에 대한 응답, 자발화 수정 등의 담화표지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구어에서 접속부사는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 (6) ㄱ. 아버지: 기껏 취직한 애한테 한다는 소리하고는..그저 딴 생각 말고 열심히 성실히 다녀. 노력하는 텐 장사 없어.
 정은: 예, 아버지.
 정우 : 근테 월급쟁이는 너무 비전이 없어요. 한푼 두푼 모아서 언제 대박 터뜨려? <드라마1>
- ㄴ. 경민: (이런 씨) 여기 방 하나만 더 주세요.
 직원: 네.. 잠깐만요..
 경민: (기다리다가, 문득) 근테요, 여기 얼마예요? <드라마1>
- ㄷ.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지.
 ㄹ. 가: 이제 그 나이가 됐으니 지 할 일은 지가 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 그러니까 내 말이.
 ㅁ. 저... 어제 네가 나한테 준 그 돈 말인데... 그러니까... 어제 네가 나한테 그냥 쓰라고 하면서 준 그 돈 말이야... 내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데...

(6ㄱ,ㄴ)에서와 같이 ‘근테’가 화제의 전환이나 도입 장치로 사용되기도 하고, (6ㄷ,ㄹ,ㅁ)과 같이 ‘그러니까’가 담화를 정리하거나 청자 발화에 대한 동의의 응답 기능 혹은 자발화 수정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등, 접속부사는 구어에서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접속부사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안주호(1992)에서는 담화 구조를 드러내는 표지로 담화표지를 설정하고 이러한 담화표지에 감탄사, 문장부사, 접속부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접속부사는 전환표지와 결말표지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또 차운정(2000)에서는 접속부사를 이음말(접속사)로 범주화하고 이들이 텍스트 구조와 관련성을 가지며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입표지, 전개표지, 결말표지, 전환표지 등의 담화표지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¹¹⁾. 그리고 개별적

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11) 차운정(2000)에서는 텍스트 구성에 있어서 각 텍스트가 연결되어 보다 큰 텍스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 텍스트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담화표지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

인 접속부사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등이 연구되었는데, 신지연(1998)에서는 ‘그런데(근데), 그래서, 그러니까(그니까)’의 개별 담화표지의 기능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김혜정(1998)에서는 ‘그래도’를 담화표지로 설정하고, ‘그래도’가 대화 참여자가 서로의 체면이 위협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부정과 망설임, 의견 초점화, 감정 정리, 화제 종결의 의미 기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 이희정(2003)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리고’를 중심으로 화제 전환이나 전개, 마무리의 텍스트 결속 기능과 후행 정보의 연결 기능과 수정, 설명, 시간별기 등의 화자의 의도, 청자에 대한 동의와 추가 정보 요청, 발언권 획득 등의 상호작용 기능으로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러니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신지연(2002)에서는 ‘그러니까’가 이유의 ‘왜냐하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담화에서 환언이나 간투사의 기능을 하거나 옆으로 벗어난 담화를 원래로 되돌릴 때 사용된다고 보았으며, 강소영(2009)에서는 ‘그러니까’가 수정이나 부연설명이나 내용 정리, 되물기의 담화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Piao Lian Yu(2012)에서는 ‘그러니까’의 담화화용 기능을 설명하기, 망설임의 공간 매우기, 수정하기, 요약 또는 평가하기, 추궁하기, 확인하기, 호응하기의 7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또 ‘그런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김미선(2012)에서는 ‘그런데’의 담화 기능을 분석하면서 담화표지로서 ‘그런데’는 화제 도입, 이의 제기, 부연 요청, 발언 재촉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며¹²⁾, 강소영(2014)에서는 ‘아니 근데’와 ‘아 근데’를 복합형 담화표지로 설정하고 ‘아니 근데’는 화제일탈, 화제복귀, 시차를 둔 수정요청의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아 근데’는 화제심화, 화제일탈, 발언권 확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접속부사에서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관련한 쟁점은 이들의 텍스트나 담화에서 기능과 관련한 것으로, 접속부사가 텍스트의 결속 차원에서 후행 담화의 앞에서 선후행 담화를 특정한 관계로 연결하면서

12) 김미선(2014)에서는 이전 연구와는 달리 담화표지를 접속부사가 문법화된 것으로 보고, 접속부사로서의 ‘그런데’와 담화표지로서의 ‘그런데’를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화표지의 범주 구분도 각 연구자마다 다소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담화표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텍스트의 결속력을 높이는 담화적 기능과, 구어의 상호교류적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특정 의사소통 수행을 위한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텍스트 결속의 접속부사의 기능은 접속부사라는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사나 접속부사 연결구, ‘이, 그, 저’ 등 지시사 연결구 등 다양한 형태와 공유되고 있어 접속부사의 범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쟁점을 기초로 접속부사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접속부사의 담화 표지화에 대해 좀 더 범위를 넓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례로 접속부사 중 ‘또’는 상호교류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또’가 지니는 앞뒤 발화의 연결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등 의미의 추상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 (7) 가. 정은: 어..친구랑 약속이 있어서..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못 갔어.
 경민: 난 또 어디 아픈가 했지...혼자 사는 데 어찌고 있나 걱정도 되구, 그래서 한번 들려봤어. <드라마1>
- 나. 정은: 어, 사원 아니구 아르바이트야.
 혜련: 아하, 아르바이트. 난 또.. 그래두 잘됐다, 전에 하던 신문배달이나 편의점이니 하는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낫잖아. <드라마1>

위에서 ‘또’는 청자 발화를 통해 화자의 전체 정보를 수정했음을 청자에게 드러내면서 수정된 정보가 선호적 정보임을 드러내는 양태적 의미도 나타낸다.

따라서 접속부사 연구에서의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토대로, 더 넓은 범위의 접속부사에 대한 텍스트 결속 기능과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기능의 체계화와 각 기능 간의 차별성과 공통성에 대한 연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의 화식부사

최현배에서는 ‘물론, 만일, 제발’ 등 문장의 방식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를 화식부사라 하위범주화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 (8) 최현배(1937/1983:600-601)에서의 화식부사의 종류
- ㄱ. 서술어의 단정을 요구하는 부사: 과연, 실로, 마땅히, 물론, 확실히, 정말, 참말, 정, ...; 단연코, 기필코, 꼭, ...; 마치, ...; 결코, 조금도, ...
 - ㄴ. 의혹이나 가설, 추측을 요구하는 부사: 어찌, 설마, 하물며, 왜; 아마, 글썽; 만약, 만일, 설령, 설사, 가령, 비록, 아무리, 암만, ...
 - ㄷ. 바람의 의미를 지니고 명령형이나 가정적 구속형을 요구하는 부사: 제발, 아무쪼록, 부디
- (9) 남기심·고영근(1985/2011:180-181)에서의 양태부사의 종류
- ㄱ. 화자의 사태에 대한 믿음과 서술 내용의 단정: 과연, 실로, 모름지기, 물론, 정말, ...
 - ㄴ. 화자의 사태에 대한 의심스러움과 단정의 회피: 설마, 아마, 만일, 설령, 비록, 아무리, ...
 - ㄷ. 회피어나 가상적 조건 하에서 일이 이루어짐을 바람: 제발, 아무쪼록, 부디, ...

위에서와 같이 최현배(1937/1983:600-601)에서는 후행 문장으로 특정한 문장 방식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이를 화식부사라 명명하고 어떠한 문장 방식이 요구되는지에 따라 화식부사를 하위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남기심·고영근(1985/2011:180-181)에서는 이들이 화자의 사태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양태부사라 명명하고 이에 따라 부사를 하위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들 부사의 후행문 호응과 부사에 드러나는 의미적 특성인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로 인해 이들 부사는 화식부사(말재어찌씨), 양태부사, 양상부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장영희(1994,1997)에서도 이들 부사가 특정한 서술 방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화식부사라는 용어를 택한다고 하면서 화식부사란 주로 문두에 위치하여 문장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문장 수식 부사로서 서법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화식부사는 발화태도의 방식과 호응하여 화자의 서술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의미에 따라 확인성, 당위성, 조건성, 추측성, 유사성, 소원성, 의문성, 유보성 결론, 강조성 부사로 하

위 분류하였다¹³⁾. 그리고 서정수(1996:793-796)에서는 이들이 문장의 서법과 양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양태부사로 범주화하고 의미에 따라 확실성, 개략성, 일반성, 예외성, 의외성, 가상성, 당위성 부사로 하위범주화하였다¹⁴⁾. 김선희(2002)에서는 이러한 부사를 양태부사라 범주화하고 서법과 호응하는 특정 어말 어미(서법) 양태부사와 ‘만일, 설령’ 등 서법이 아닌 가정법, 조건절 등과 호응하는 특정 연결 어미(양태) 호응 양태부사, 그리고 ‘결코, 조금도’ 등 부정소 호응 양태부사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화식부사 혹은 양태부사로 범주화해 온 부사들은 문장 내에서의 서법적 호응과 의미적으로 화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는 양태성에 주목하여 여타 부사와 구분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신서인(2014)에서는 그 동안의 화식부사에 대한 연구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에만 주목해 왔던 것을 비판하며, 이의 담화적 기능과 관련하여 담화 차원에서 명제와 발화 행위, 화자, 청자 등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하기도 하였다¹⁵⁾.

13) 이의 각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확인성 부사: 과연, 역시

당위성 부사: 마땅히, 모름지기, 으레, 물론, 반드시, 꼭, 기필코, 기어이, 응당, 의당

조건성 부사: 만일, 만약, 가령, 설령, 설사, 설혹, 비록, 아무리

추측성 부사: 아마, 행여, 혹시, 아무래도, 어쩌면, 설마

유사성 부사: 마치, 흡사, 천연

소원성 부사: 아무쪼록, 부디, 제발

의문성 부사: 왜, 어찌

유보성 결론 부사: 아무튼, 어하튼, 어쨌든, 하여간, 어떻든, 좌우간

강조성 부사: 결코, 절대로, 도저히, 도무지, 영, 퉁, 아예, 전혀, 전연, 차마, 도대체

14) 이러한 부사의 예시를 보이면, 확실성 부사(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정말로, 참말로, 실로, 참,...), 개략성 부사(대개, 대략, 대체로; 어쨌든, 하여튼, 좌우간), 일반성 부사(무릇, 보통), 예외성 부사(다만, 단, 오직, 특히), 의외성 부사(오히려, 도리어, 차라리), 가상성 부사(아마, 혹시, 설령, 만일, 설사, 비록, 아무리), 당위성 부사(물론, 하기야)를 예시로 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서정수(1996:793-796)에서는 문법 범주 ‘부사’가 아닌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부사어’로 명명하고 그 예시로는 부사 외에도 ‘명사+조사’ 등의 부사어 기능을 하는 표현들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15) 이와 같이 화식부사 혹은 양태부사의 범주가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김선희(2005)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사의 분류 체계에서 문장부사와 성분부사의 구별이 명확치 않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부사의 분류 체계나 이들 부사의 범주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기로 한다.

(10) 신서인(2014)에서의 화식부사의 분류

ㄱ. 발화행위부사

- a. 발화행위 중심 부사: 요컨대, 예컨대, 이른바, 이를테면
- b. 화칭자 중심 부사: 화자 중심 부사: 사실, 솔직히, 실은
청자 중심 부사: 제발, 부디, 아무쪼록, 원컨대, 바라건대

ㄴ. 명제부사

- a. 양태부사: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진짜, 정말, 참말, 진실로, 아마, 혹시, 설마,
- b. 평가부사: 다행히, 불행히

이와 같이 화식부사를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하든, 발화행위와 화칭자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든, 이들 화식부사의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의 쟁점은 이들 부사 중 일부는 문장의 통사적 차원이 아닌 담화 차원에서 해석되고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자에 따라 목록의 포함 여부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장영희(1994), 신서인(2014) 등에서 제시한 ‘아무튼, 하여튼, 여하튼, 어쨌든, 요컨대, 이른바’ 등 담화 전개와 관련된 부사들은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담화 차원에서 기능이 밝혀져야 한다. 즉 이들은 접속부사의 담화 전개와 진행과 관련한 부사들과 같이 담화의 결속에 기여하는 부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화자의 명제에 대한 믿음과 판단을 보이는 ‘사실, 진짜, 정말, 분명히, 물론, 과연, 역시, 혹시’ 등 확실성 혹은 추측성 부사로 범주화되어 온 부사들도 담화에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분석될 수 있다. 즉 이들 부사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믿음인 양태성을 청자에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발화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¹⁶⁾.

16) 이러한 부사 중 ‘정말, 진짜, 사실’의 담화표지로의 기능에 대해 임규홍(1998), 김태호, 정선영(2012), 이수현(2014), 김현지(2015)에서 다룬 바 있다. 임규홍(1998)에서는 ‘참말, 정말, 진짜’를 ‘정말’류 부사로 범주화하고, 이들은 명제 부사로 사용되다가 정도부사로 나아가 담화적 기능을 하는 부사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 어휘적 기능에서 담화적 기능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김태호, 정선영(2012)에서는 ‘사실, 솔직히, 정말, 진짜, 참’을 ‘진실’표현 어휘라고 하고, 이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의 기능으로 ‘강조, 주의집중, 주저함, 놀람, 인정’ 등을 제안하면서, 주로 ‘강조’와 ‘주의집중’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수현(2014)에서는 ‘참, 참말로, 정말, 정말로, 진짜, 진짜로’를 부사 기원형 담화표지로 범주화하고 이에

- (11) 가. 동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하고) 저, 어머님, 말씀 낮추시죠...
- 엄마: 어, 그래도 되냐? (하고)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우리 유 실장님이 참 맘에 들었었거든, 근데 **역시** 이렇게 인연이 되네... <드라마1>
- 나. 경화: **역시** 엄마가 아들 하난 잘 뒀네. <드라마1>
- 다. 동준: (운전하며) **확실히** 춘천은 서울이랑 공기부터가 틀려요. <드라마1>
- 르. 영길: 난 너하곤 달라.
- 마오: **물론** 다르지. 나한테 딸을 지켜낼 힘이 있지만, 너한테 없다는 게 말이야. <드라마1>
- ㅁ. PI: 맞아. 막 요즘 비 많이 와서 비 피해 겪었다 그러잖아, 난 아직 좀 우리 엄마 아빠 덕분에 그런 동네 안 살아 봐서 그런지 못 겪었는데, 가끔씩 티비에서 보면 진짜 세간살이 다 젖어 가지구 **진짜** 불쌍해. <세종 구어>
- ㅂ.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개가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줄은 **진짜** 몰랐어.
- (12) 가. 동준: 정은 씨, 난 정은 씨가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음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정은 씨 재능이 있거든요. **아마** 내 판단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좀 더 프로로 임해줬으면 하는 내 욕심 지나친 거 아니죠? <드라마1>
- 나. 용준: 농담이야. **실마** 니가 그런 사고까지야 쳤잖아. 그러면 진짜 골 때리지.. 인생 끝장 나는 거 아니냐? <드라마1>
- 다. 경민: **혹시** 너, 남자 하나 잡아서 팔자 고쳐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냐? <드라마1>
- 르. 저... 죄송하지만 **혹시** 내일까지 집으로 배송해 주실 수 있으세요?
- ㅁ. 혜련: 이제 너 그 집에서 나와야잖아?
- 경민: 저기, 너한테 이런 얘기하긴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 **사실** 정은이 많이 좋아해. <드라마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의 ‘확실히, 물론, 진짜, 역시’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실성과 화자의 믿음에 명제 내용이 부합하는 양태적 의미를 드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김현지(2015)에서는 ‘진짜, 정말’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반응하기’를 제안하면서 세부적으로는 확인이나 놀람, 의심 표현의 기능과 화제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종남(2015)에서는 ‘참’의 담화적 기능으로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비단정적인 태도 표출,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등을 제시하였다.

러내면서 이들 모두 화자가 발화 내용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 부사를 생략한 발화와 비교해 보면 이들 부사를 삽입한 경우 화자의 발화 내용이 강화됨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12)의 ‘아마, 설마, 혹시’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약함을 드러내면서 화자가 발화 내용을 약화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12ㄷ)과 같이 요청 발화에서 ‘혹시’는 발화 내용에 대한 공손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 (12ㄱ)의 ‘사실’은 자신의 발화를 부드럽게 도입하기 위한 완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 화식부사 혹은 양태부사 중 ‘진짜, 정말, 하기는, 하기에, 과연, 역시, 설마, 아무려면’ 등 화자의 믿음이나 판단을 드러내는 일부 부사는 다음과 같이 담화에서 후행 문장이 없이 홀로 쓰여, 청자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7).

- (13) 가. 현정: 야 실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널 좋아하냐. 원래 재벌 2세들이 생각없이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잖아. 니가 좀 특이하니까 재미로 건드리 보려는 거 아닐까?

정은 : **설마**... <드라마1>

- 나. P1: 이거 폐강되는 건 아니겠지?

P2: **설마**. <세종 구어>

- 다. P1: 돈이 짱이래니까.

P3: 죽어두 여한도 없을 거 같애.

P2: 여한은 있지 않으니까?

P3: 무슨 여한이 있나? 자기 죽었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김정일까지 꽃 보내 줬는데.

P2: **하긴**. <세종 구어>

- 르. 가: 내가 일 다 처리했으니까 걱정마.

나: **역시**.

- (14) P1: 전공 과목을, 법대 걸 듣는다구?

P2: 아 아니 아니. 교양으로. 재밌대, 내 친구 법대잖아, 근대 되게 재밌대,

P1: **진짜**? <세종 구어>

17) 이를 후행문의 생략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구어 담화에서 이와 같은 생략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며 후행문의 복원이 다양한 문장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일반 생략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마, 하긴, 역시’는 청자의 발화에 대해 발화 내용에 대한 의심스러움이나, 자신의 이해도, 자신의 기대에 부합함을 드러내면서 청자 발화에 대한 부정 혹은 긍정의 반응 발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4)의 ‘진짜’는 청자의 발화에 대한 확인을 위한 반응 발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무튼, 하여간, 정말, 진짜’와 같은 부사는 담화에서 후행 문장 없이 홀로 쓰여 화자의 사태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거나 청자에 대한 요청이나 위협 등의 화행을 수행하기도 한다¹⁸⁾.

- (15) ㄱ. P2: 나두 그렇게 심하겐 안 당해 봤는데, 물은 좀 따라 다녀 우리 식구들. 그게 좀 문제야. 나 어렸을 때 대방동 살 때두, 물난리 한번 났는데, 우리 집 부엌 다 젖고 다 물에 차구, 이슬아슬하게 마루 앞까지 찰랑찰랑

P1: 아휴 **아무튼**. <드라마1>

- ㄴ. 정은: 왜, 내가 못할 거 같애? 난 아쉬울 거 없어. 그렇게 되면 귀찮은 너 두 떼어버릴 수 있고 빌린 돈도 안 갚아도 되는데 나로서야 좋지. 다만 친구로서 조금 양심에 가책이 있긴 하겠지만, 것도 그래. 친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친구로서의 도리 아니겠어?

경민: 야 너...(기막혀 말도 안 나온다)

정은: 알아서 해. 할 거야 말 거야.

경민: 아후 **진짜**..(부채질만 해 대는데) <드라마1>

- (16) 혜련: 경민이가 널 택했을 린 없을 테고, 니가 잡은 거 아냐? 너 이렇게 사는 거 부모님도 아시니?

정은: (봉투 탁 던지고 일어선다) 너, 말 다했어?

혜련: 혹시 모르지, 법대생 잡은 줄 알면 기뻐하실지도..

정은: 이게 **정말!** <드라마1>

위 (15)에서와 같이 ‘아무튼, 진짜’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16)에서의 ‘정말’은 청자에 대한 위협의 화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일부 양태부사는 후행

18) 이는 일종의 의미의 환유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접한 언어 환경에서 자주 사용됨으로써 그 이후 대화함축을 통해 이들 부사가 인접한 언어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Smimova, E, 2009(최지영 역, 2015:231-243) 참조)

문장이 생략된 채로 양태부사만으로 담화에 사용되어 청자 발화에 대한 긍정의 응답이나 확인,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심정을 드러내는 반응 발화나 청자에 대한 위협 등의 화행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물론, 하필, 차라리, 오히려’ 등은 담화 맥락 속에서 선행 담화나 화자의 기대와 전제와 관련되는 부사로서 명제 내용 혹은 개체의 선택 외에 더 적절한 다른 선택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이도 역시 담화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부사이다(20).

(17) ㄱ. 마오: 케이 넌 왜 태국에 남지 않고 날 따라 왔지? 야심?

수현: 잘... 모르겠습니다.

마오: (수현을 지긋이 보며) 물론, 야심도 있겠지만 내 눈엔 다른 게 보여.
<드라마2>

ㄴ. 친회장: 죄송합니다. 제 사정 때문에 갑자기 일정을 당기게 돼서...

영길: 아니요. 한두 달 후면 피크라 배가 없어요. 차라리 지금이 수월합니다. <드라마2>

ㄷ. 번씨: 허... 내가 미쳤어?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거래 안 해. 차라리 그때 처럼 콩밥을 먹구 말지.

ㄹ. 지우: 잘 보이셔야겠네요. 그럼 시합 저 드려야 하는 건가요?

친회장: 좋은 조건에 배편을 쓰게 해 주셨으니, 잘 보여야 되는 쪽은 오히려 집니다.

(17)에서와 같이 ‘물론’은 담화에서 가정될 수 있는 개체나 명제 내용 중 선택된 명제 내용(야심이 있다)이 비선택된 개체나 명제 내용보다 우선적 선택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라리’는 담화에서 가정될 수 있는 개체나 명제

19) 윤평현(2003)에서는 이를 ‘소형문’이라 하고 장소원(1994)에서는 ‘소형발화’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소형발화를 구성할 수 있는 단위로 명사나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혹은 명사구, 동사구, 부사구 등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특히 부사나 감탄사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형발화를 구성하는 부사의 예로 ‘그런데, 그래서, 그럼, 정말, 벌써, 왜, 아무튼, 어쨌든, 물론, 어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 임동훈(2003)에서는 보조사 ‘마저, 나마’ 등은 명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담화 맥락 속에서 그 앞 단어가 지시하는 개체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물론, 차라리, 오히려’ 등은 이들과 결합되는 명제 혹은 개체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중 선택된 개체(지금)나 명제 내용(콩밥을 먹다)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우월한 선택임을 나타내며, ‘오히려’는 담화에서 가정될 수 있는 개체나 명제 내용 중 선택된 개체(저)나 명제 내용이 비선택된 개체나 명제 내용을 배제한 선택임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화식부사 혹은 양태부사 연구에서의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의 쟁점도 접속부사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결속 기능이나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과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인 양태성 등과 관련한 논의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식부사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진짜, 정말, 사실’ 등의 일부 부사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어, 앞에서 논의한 ‘과연, 역시, 혹시, 설마, 분명히, 하긴, 아마, 물론, 하필, 차라리, 오히려’ 등 다양한 부사들의 담화적 기능이나 부사의 화행이나 응답 기능 등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부사의 문법화와 담화 기능

이미 앞서 접속부사와 화식부사의 담화 상에서의 기능을 살펴면서, 접속부사와 같이 담화 상에서 본래부터 담화의 연결이나 전환 등 담화 구성과 관련하여 결속에 기여하거나 화식부사나 양태부사와 같이 부사의 본래적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어 담화 상에서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등의 담화 상의 기능을 하게 되는 부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속부사나 양태부사 외에도 부사 본래의 어휘적 의미를 잃거나 어휘 의미가 약화되어 담화 표지로서 담화 상에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사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원표(1992)에서 시간부사 ‘이제’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언급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좀, 막, 그냥, 다, 왜’ 등과 같은 부사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²¹⁾.

21) 전영옥(2002)에서는 한국어 담화 표지의 전반적 특징을 논의하면서 부사 형태를 취하는 담화표지들로 ‘그래,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근까), 그런데(근테), 그럼,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답에(그 다음에), 이케, 저케, ‘정말’류, 아무튼, 어쨌든, 여하튼, 왜, 이제, 좀, 막, 좌우간, 참, 하여간, 어디, 가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18) 가.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이만치 되었어. **이제** 아버 생각하지 말아라.(이원표,1992:118 재인용)
 나. 가. 그 사람 절대 안 만난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나: 네.
 가: **인제** 그 의정부 사건 있죠? (이원표, 1992:123 재인용)
- (19) 가. 경민: 들어갈 때 되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내 걱정하지 말고, 진지 잘 드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아셨죠?
 할머니: 그래...(기특한)
 경민: 우리 할머니, 내 걱정하느라고, **그냥** 얼굴이 반쪽이 됐네..
 할머니: 그래? 살이 빠졌어? <드라마1>
 나. 아이, 이제 볼 좀 그만 때, **그냥!** 구들장에 고기 구워먹을라고 그래? 방이 펄펄 끓잖아, **그냥!** (심란희,2013:162재인용)
 다. 왜 그렇게 정내미가 떨어지든지, 어휴 **그냥 그냥 그냥**...(심란희,2013:162 재인용)
- (20) 정은: 그리구 이거.. 눈의 피로도 덜어주고 정신집중도 잘 되고 수험생한테 그렇게 좋대. 내일부터 하루 두 알씩 꼭 챙겨먹어.
 경민: 야 뭐 이런 걸 **다**.. <드라마1>
- (21) 아니 **왜** 그런 말 있잖아.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고.

이원표(1992)에서는 시간부사 ‘이제’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살폈는데, 이에 따르면, (18)에서와 같이 ‘이제’가 담화의 응집력 향상을 위해 시간적 의미의 기본 의미에서 접속사적인 담화의 연결 기능을 하거나 자신의 화행을 예고하는 등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²²⁾. 이정애(1998)과 심란희(2000), 최영자(2003), 김명희(2006) 등에서는 (19)에서와 같은 부사 ‘그냥’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최영자(2003)에서는 ‘그냥’은 분포 제약과 마침법 제약, 청자 높임법 제약이 없는 자유형 담화표지라고 하고 있으며, 김명희(2006)에서는 ‘그냥’이 문법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담화에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정애(1998)에서는 ‘그냥’을 담화표지의 하위 범주인 화용표지로 기술하면서, 전경과 후경의 경계 표시, 전후 발화

22) 이 외에도 ‘이제’는 화제 도입과 화제 제시, 화제 부연, 화제 요약, 화제 진행 등의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의 연결, 화자의 주관적 태도 표출, 화제 전이, 시간 별기 등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으며, 심란희(2000)에서는 화제와 화제 결속, 화자와 화제 결속, 화자와 청자 결속 등 다양한 담화결속 기능과 자신의 발화 내용을 중요하거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화제의 중요성 약화와 주장 및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강조하는 ‘화자의 주장 및 태도 강조’의 양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 안주호(2009), 김영철(2010)에서는 담화표지로서의 ‘막’을, 구종남(2008)에서는 (19)에서와 같은 담화표지 ‘다’, 안주호(2009)에서는 ‘좀’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이기갑(1995), 구종남(1998), 강우원(2000), 주경희(2000)에서도 부사 기원의 담화 표지 ‘이제, 좀, 참’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또 안정아(2008, 2015)에서도 21세기 세종 계획에 의해 구축된 구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그냥, 막, 좀’의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이들 담화표지의 기능으로 발화의 완화 혹은 약화와 발화의 강조 혹은 강화 기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21)과 같은 담화표지 ‘왜’에 대해서는 이한규(1997)에서 분석한 바 있는데, 이에서는 의문사 ‘왜’의 의미 기능으로부터의 고정화(문법화)를 통해 담화표지 ‘왜’의 의미가 추론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부사의 담화 화용적 기능과 관련하여,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일부 부사가 어휘적 의미를 잃고 담화 결속과 관련한 접속부사처럼 기능하여 화청자의 상호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특정한 의미소통적 기능을 보이거나 화자의 발화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등 담화표지화하고 있음이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사의 화행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정말, 어서’ 등 일부 부사 이외에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앞서 화식부사 혹은 양태부사에서 논의한 ‘설마, 하긴, 아무튼’과 같이, 화식부사가 아닌 일반 부사도 하나의 발화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화가 다음과 같이 화행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22) ㄱ. 정은: 조심해서 가(하고 문 닫으려면)

경민: **잠깐만**, 잠깐만(문 붙잡고)

정은: 왜? <드라마1>

ㄴ. 정은: 누구.. 만나구 왔는데?

경민: 우리, 한지붕 아래 살긴 하지만 서로 사생활은 보장해 주자. 18세 이상 성인끼리 그제 예의 아니겠니?

정은: (아무래도 헤련이 같은데..)

경민: (콩콩) **가만**,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치사하다, 너 혼자 삼겹살 구워먹었나? <드라마1>

ㄷ. 가: 야, 어디다 싸인 해?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나: 아, **쫌**... 왜 이렇게 정신없게 굴어.

ㄹ. 어휴~ 이걸 **그냥** 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깐, 가만, 쫌, 그냥’은 수행동사나 술어로 구성된 요청 발화 없이도 청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청하거나 금지하거나 위협하는 등 화행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사의 화행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일부 부사에 국한되어 있어, 특정한 화행 기능을 수행하는 부사에 대한 연구와 이들의 담화에서의 기능이 좀 더 면밀히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및 제언

부사라는 품사는 품사분류의 기준인 형태와 의미, 그리고 문장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 품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그리고 문장부사를 다시 접속부사와 화식부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사는 문장을 중심으로 한 품사 분류 중 하나이고 따라서 이들의 기능은 문장 내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사라는 범주를 담화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들의 기능과 분류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 부사 연구에 있어서의 쟁점은 담화의 결속에 관련된 부사의 기능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부사이고 ‘어쨌든, 요컨대, 이른바’ 등의 일부 문장부사나 ‘이제’와 같이 부사에서 접속부사화한 일부 부사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적 기능은 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그, 여기, 거기’,

‘위, 다음’ 등과 같은 대명사, 명사, 그리고 이들과 함께 구성된 담화 연결 기능을 하는 구 등 품사와 단어, 구의 경계를 넘어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들과 함께 그 담화적 기능을 체계화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 부사 연구의 쟁점은 ‘근데, 그럼, 그러니까, 아무튼, 하여튼’ 등 일부 접속부사와 문장부사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과 관련한 것이었다. 즉 이들은 구어 담화에서 담화의 전개와 진행에 관여하며 발화를 서로 결부시키면서 상호소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담화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화표지로서 의사소통적 기능을 하고 있어 화자 발화의 도입이나 마무리를 위한 장치로서의 담화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또한 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자, 참, 글썄, 아니, 저’ 등과 같은 감탄사의 담화적 기능과도 연계하여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접속부사뿐 아니라 ‘혹시, 아마, 확실히, 진짜, 정말’, ‘그냥, 좀, 그저, 막, 다’ 등과 같은 부사도 화자의 발화에 대한 완화나 강화 장치로서, 혹은 담화 전개나 진행에 관여하는 담화표지로서 기능한다는 점도 부사 연구에서의 쟁점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들 기능이 부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음, 어, 뭐, 어디’ 등 감탄사나 담화표지화된 명사 등과 통합적으로 이들의 담화적 기능을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담화표지화된 의문부사 ‘왜’의 담화적 기능은 ‘뭐, 무슨, 어디’ 등과 같은 의문사의 담화표지화와의 관계성 내에서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부사 연구에서는 그리 큰 주목을 받아오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하긴, 설마, 역시, 물론’ 등과 같이 상호소통적 의미소통 상황의 구어 담화에서 청자의 발화에 대한 긍부정의 응답 기능, ‘근데, 그래서, 그럼, 진짜, 정말’과 같은 청자 발화에 대한 확인 기능, ‘정말, 진짜, 그냥’과 같은 청자에 대한 위협 기능, ‘가만, 잠깐’과 같은 요청 기능 등 다양한 화행적 기능을 하고 있는 부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화행적 기능이 부사라는 품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아무렴, 암, 아니, 응, 그래, 췌, 옛다, 예끼’ 등과 같이 청자 발화에 대한 응답이나 요청 등의 화행 기능을 하는 감탄사와 ‘저걸, 조용’ 등과 같은 구나 명사 상당어 등의 다른 품사 범주의 어휘(구)의 담화적 기능과 연계하여 분석되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사 중 ‘하필, 물론, 차라리, 오히려’ 등 담화에서 가정된 개체나 명제내용과 관련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부사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만, 도, 이나, 마저, 라도’ 등의 담화에서 가정된 개체와의 관련성으로 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보 조사와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문장 단위에서 범주화한 부사라는 품사가 담화 화용적 관점에서 어떠한 논의를 중심으로 쟁점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범주를 제외하고 어휘 범주로서는 부사가 감탄사 못지않게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상호소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사의 담화적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사와의 교차적 접근과 단어와 구의 구분을 넘어서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탈범주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부사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와의 교차적 접근을 통해 부사에 나타나는 담화적 기능이 좀 더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소영(2005), “구어담화에서의 ‘그래 가지고’의 의미”, 『한국어의미학』 16, 한국어의미학회, pp. 1-21.
- 강소영(2009), “담화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 연구”,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학회, pp. 27-56.
- 강소영(2014), “복합형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아 근테, 아니 근테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44, 한국어 의미학회, pp. 313-345.
- 강우원(1998), “담화표지 ‘참’과 어찌말 ‘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 7-1, 한국언어과학회, pp. 1-22.
- 구종남(2008), “담화표지 ‘다’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pp. 37-59.
- 구종남(2015),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 의미 기능”,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pp. 399-428.
- 김경훈(1996), 『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기(2005), “어휘적·문법적 요소로서 말제어찌씨”, 『우리말연구』 16, 우리말학회, pp. 99-116.

- 김문기(2010), “감탄사의 문법 범주에 대한 연구”, 『동남어문논집』 30, 동남어문학회, pp. 5-24.
- 김문기(2012), “감탄사와 부사의 문법 범주적 관련성 연구”, 『한글』 296, 한글학회, pp. 123-150.
- 김미선(2010), “감탄사와 부사의 경계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5-26.
- 김미선(2012), ““그런데”의 담화 기능 연구”, 『인문과학연구』 3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35-54.
- 김민수(1960), 『국어문법론연구』, 통문관.
- 김보영(2014), “구어 말뭉치와 한국어 교재에서의 담화표지 ‘좁’의 기능 비교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3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 81-102.
- 김선호(2005), “문장부사 설정에 대한 재고”, 『언어와 정보사회』 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 36-54.
- 김선희(2002), “부정 양태 부사의 통사, 의미적 특성”, 『한글』 256, 한글학회, pp. 69-98.
- 김영철(2007), “우리말 담화표지 ‘참’ 고찰”, 『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pp. 235-252.
- 김영철(2010), “우리말 담화표지 ‘막’ 고찰”.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pp. 5-22.
- 김태호·정선영(2012), “한국어에 나타나는 ‘진실’표현 어휘의 담화표지 기능 연구”, 『비교문화연구』 2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 453-477.
- 김현지(2015), “한국어 구어에서 “정말?”, “진짜?”의 담화 기능 연구”, 『언어와 언어학』 6, 한국의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 79-111.
- 김혜영·강범모(2010), “구어 속 강조적 정도부사의 사용과 의미”,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pp. 101-129.
- 김혜정(1998), “담화표지 ‘그래도’의 의미 기능”, 『동남어문논집』 8, 동남어문학회, pp. 51-69.
- 남기심·고영근(1985/2011),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병수(1976), “양태부사에 대하여”,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pp. 151-167.
-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성교(1999), “담화 연결사 ‘그러니까’에 관한 연구”, 『언어학』 7-3, 대한언어학회, pp. 379-398.
- 서정수(1996), 『국어문법(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서태룡(1999),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동악어문논집』 35, 동악어문학회, pp. 21-49.
- 손남익(1998), 『국어부사의 연구』, 박이정.
- 신서인(2011),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0, 국어학회, pp. 207-238.
-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pp. 89-118.
- 심란희(2012),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 연구”, 『어문론총』 59, 한국문학언어학회, pp. 155-186.
- 안명철(2001), “부사에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어문연구』 1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5-27.
- 안정아(2008), “담화 표지 ‘막’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pp. 251-279.

- 안정아(2015), “부사 기원 담화 표지의 담화 기능 비교 연구 - ‘그냥, 막, 좀’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 313-342.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 21-38.
- 안주호(2009), “축약형 담화표지 ‘좀/막’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4, 한국사전학회, pp. 199-223.
- 윤평현(2003), “국어 소형문의 발화 행위에 대한 고찰”, 한글 259, 한글학회, pp. 199-232.
- 이기갑(1995), “한국어의 담화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1, 담화인지언어학회, pp. 261-287.
- 이원표(1992), “시간부사 ‘이제’의 담화기능”, 『인문과학』 6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105-137.
- 이정애(1999),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한규(1997), “한국어 담화표지 ‘왜’”, 『담화와 인지』 4-1, 담화 인지 언어학회, pp. 1-20.
- 이환목(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pp. 126-139.
- 이희자(1995), “‘접속어’연구 1 - ‘그래서’연구를 통해서 본 ‘그 - 표제어’류 와 관련된 문제 -”, 『언어사실과 관점(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5, 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 219-252.
- 이희정(2003), 『한국어의 ‘그리-’형 담화표지 기능 연구: 일상대화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임규홍(1998), “부사 ‘정말’류의 담화적 의미”. 한국어의미학 2, 한국어의미학회, pp. 237-254.
-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12, 한국어의미학회, pp.127-153.
- 임유중(1996),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14, 한국언어문화학회, pp. 187-218.
- 임유중(1998), “국어 부사의 하위 분류”, 어학연구 34-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p. 175-204.
- 임유중(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 장소원(1994), “현대 국어의 소형발화 연구”, 『텍스트언어학』 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 261-283.
- 장영희(1994), 『현대국어 화식부사의 의미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장영희(1997), “화식부사의 의미 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어의미학』 1, 한국어의미학회, pp. 219-234.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pp. 113-146.
- 정일 (2012), “접속 부사의 청자 반응 표현 기능에 대한 연구 -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를 중심으로 -”. Journal of Korean Culture 21,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pp. 169-201.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차윤정(2000), “이음말의 담화표지 기능”, 『우리말연구』 10, 우리말학회, pp. 105-125.
- Elena Smimova & Tanja Mortelmans(2009), *Funktionale Grammatik -Konzepte*

- und Theorien-*, Walter de Gruyter GmbH Berlin Boston. (최지영 역(2015), 「기능문법의 개념과 이론」, 한국문화사)
- Michael Stubbs(1983), *Discourse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송영주 역(1993),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Piao Lian Yu(2012), “‘그러니까’의 담화화용적 기능 연구”, 『언어와 문화』 8-1, 한국언어문화교육학, pp. 81-98.

한송화

소속: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전화 번호: 02-2123-6547

전자 우편: hansh@yonsei.ac.kr

원고 접수일: 2016. 04. 29.

원고 수정일: 2016. 06. 22.

게재 확정일: 2016. 06. 24.